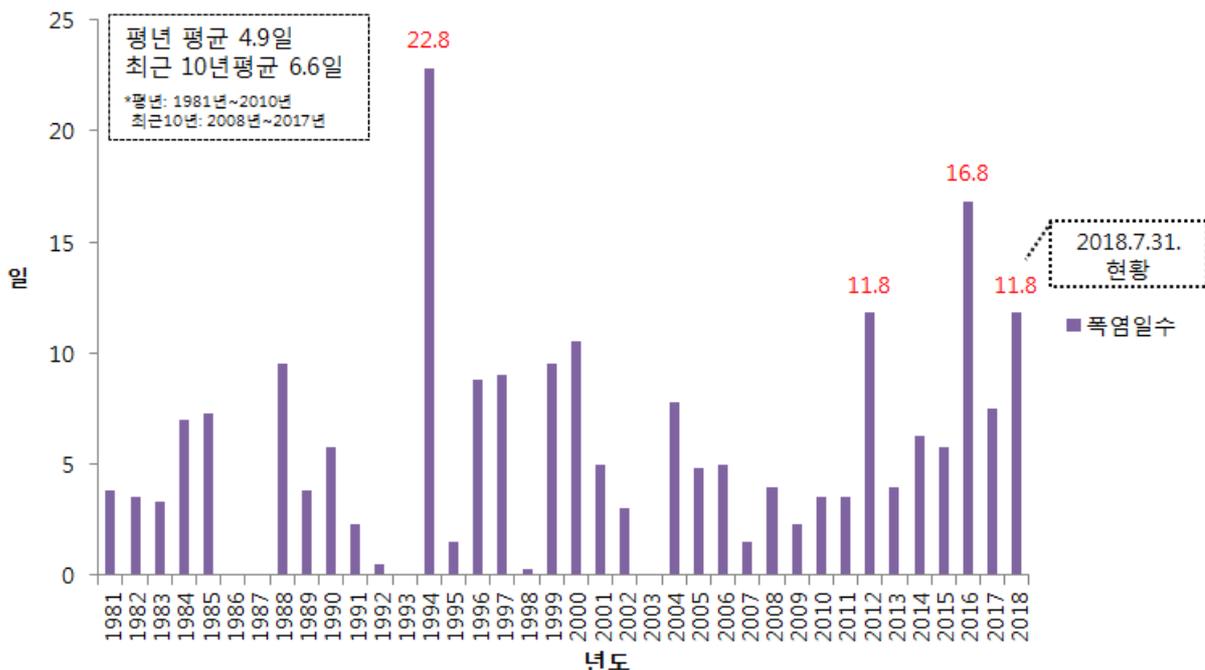


<b>배포일시</b>	2018. 8. 1.(수) 09:00 (총 5매)		<b>보도시점</b>	<b>즉 시</b>	
<b>담당부서</b>	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	<b>담당자</b>	과 장 박 종 숙	<b>전화번호</b>	070-7850-8336

**수도권 7월 폭염 및 열대야 현황 비교 분석**  
 - 2018년 7월 폭염 및 열대야일수, 1994년 이후 가장 많아

- 1981년~ 2017년 수도권 지역(서울, 인천, 수원, 강화)의 연도별 평균 폭염일수
  - 2018년 7월까지의 평균 폭염일수는 11.8일로 1994년 22.8일, 2016년 16.8일 다음으로 2012년도와 같은 평균 폭염일수를 보였다.
  - 평년(1981~2010) 평균 폭염일수는 4.9일, 최근 10년(2008년~2017년) 평균 폭염일수는 6.6일로 최근 10년 폭염일수가 다소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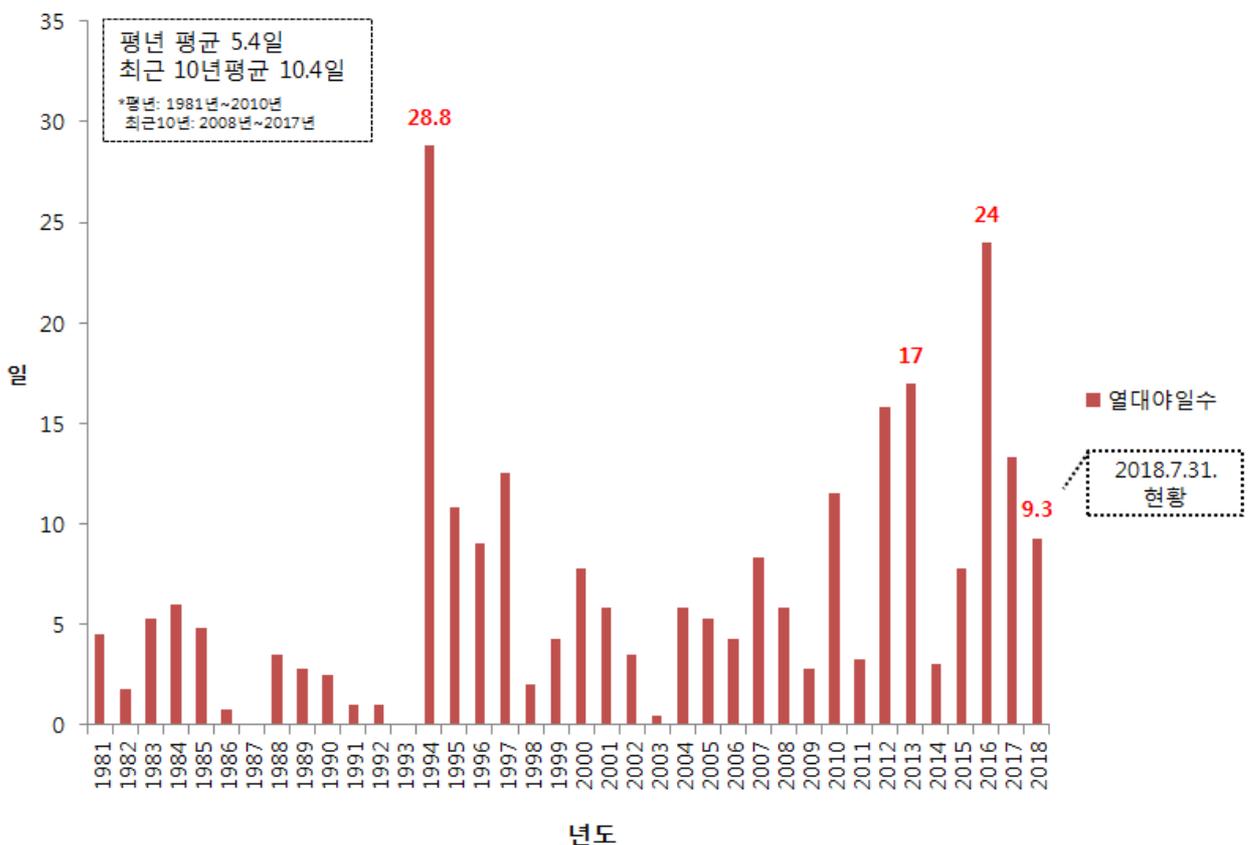


[그림 1] 연도별(1981~2018) 수도권 폭염일수  
 \*2018년은 7월까지의 자료 산출 결과

※ 폭염일수 : 일 최고기온이 33°C 이상인 날  
 열대야일수: 밤(18:01~익일09:00) 최저기온이 25°C 이상인 날

□ 1981년~ 2017년 수도권 지역(서울, 인천, 수원, 강화)의 연도별 평균 열대야일수

- 2018년 7월까지의 평균 열대야일수는 9.3일을 기록한 가운데, 1994년 28.8일, 2016년 24일, 2013년 17일 순으로 많은 열대야일수를 기록하였다.
- 평년(1981~2010) 평균 열대야일수는 5.4일, 최근 10년(2008년~2017년) 평균 열대야일수는 10.4일로 최근 10년 열대야일수 또한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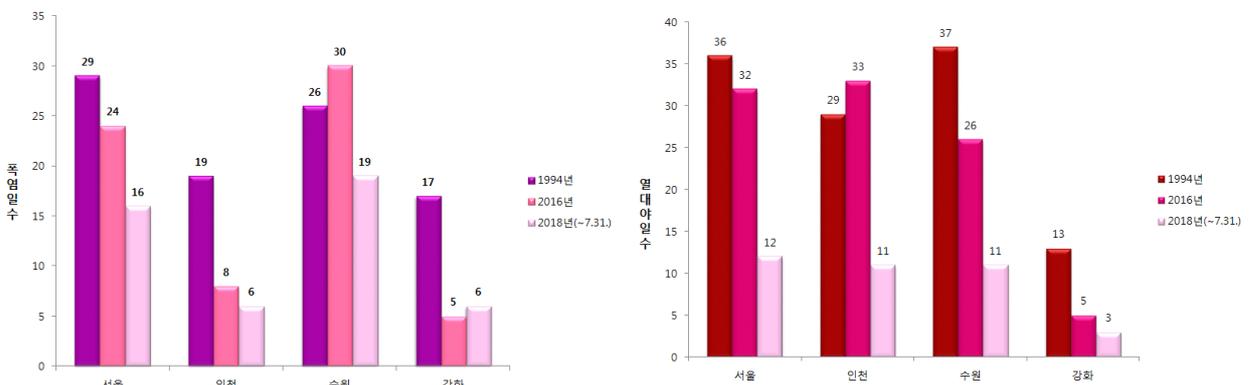


[그림 2] 연도별(1981~2018) 수도권 열대야일수  
\*2018년은 7월까지의 자료 산출 결과

□ 1994년, 2016년, 2018년의 지역(서울, 인천, 수원, 강화)별 폭염·열대야 일수

- 2018년 7월까지의 폭염일수는 수원이 19일로 가장 많았고, 그 뒤를 이어 서울 16일, 인천과 강화에서 6일로 나타났고, 열대야 일수는 서울이 12일로 가장 많았고, 인천과 수원이 11일, 강화가 3일로 나타났다.

- 1994년 폭염일수는 서울 29일, 수원 26회, 인천 19회, 강화 17회 순으로 많았으며, 2016년 폭염일수는 수원 30회, 서울 24회, 인천 8회, 강화 5회 순으로 많았다.
- 1994년 열대야 일수는 수원 37회, 서울 36회, 인천 29회, 강화 13회 순으로 많았고, 2016년 열대야 일수는 인천 33일, 서울 32일, 수원 26일, 강화 5일 순으로 많았다.



[그림 3] 1994년, 2016년, 2018년 지역별 폭염(좌) 및 열대야일수(우) 비교  
\*2018년은 7월까지의 자료 산출 결과

□ 1994년, 2016년, 2018년의 지역(서울, 인천, 수원, 강화)별 폭염·열대야 지속일수

※ 지속일수는 연속으로 현상이 발생한 일수를 말함  
1994년과 2016년은 연도 전체, 2018년도는 7월 31일까지의 분석 결과임

- 2018년도 7월까지의 폭염 지속일수는 서울과 수원에서 14일로 가장 길게 지속되었고, 강화가 4일, 인천이 3일 동안 지속되면서 3개년도(1994년, 2016년, 2018년) 중 최장 폭염 지속일수인 1994년 수원 지역에서의 15일에 버금가는 지속일수를 보였다.
- 연도별 폭염 지속일수를 보면 1994년에는 수원 15일, 서울 14일, 인천과 강화가 8일을 기록하였고, 2016년에는 수원 23일, 서울 11일, 인천 3일, 강화 2일을 기록하였다.
- 2018년 7월까지의 열대야 지속일수를 보면 서울과 인천이 11일로 가장

- 길게 지속되었고, 수원이 그 뒤를 이어 10일, 강화가 3일을 기록하였다.
- 연도별 열대야 지속일수는 1994년에 서울 24일, 수원 22일, 인천 12일, 강화 4일을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인천이 24일, 서울이 21일, 수원 7일, 강화는 이틀이상 지속된 경우가 없었다.
  - 대체로 폭염지속일수보다 열대야 지속일수가 더 길었고, 수원지역의 경우 2016년 열대야 일수는 많으나 불연속적으로 열대야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일수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.

지역/년도	폭염 지속일수(일)			열대야 지속일수(일)		
	1994년	2016년	2018년	1994년	2016년	2018년
서울	14 (7.16.~29.)	11 (8.3.~13.)	14 (7.18.~)	24 (7.17.~8.9.)	21 (8.3.~23.)	11 (7.21.~)
인천	8 (7.22.~29.)	3 (8.4~6.) (8.20~22.)	3 (7.22.~24.) (7.29.~)	12 (7.20.~7.31.)	24 (8.1.~8.24.)	11 (7.21.~)
수원	15 (7.15.~29.)	23 (8.3.~25.)	14 (7.18.~)	22 (7.17.~8.7.)	7 (8.17.~23.)	10 (7.22.~)
강화	8 (7.22.~29.)	2 (8.4.~5.)	4 (7.28.~)	4 (7.27.~30.) (8.1.~4.)	1	3 (7.27.~29.)

<표 1. 1994년, 2016년, 2018년(7.31.) 지역별 폭염·열대야 지속일수>

- 3개년도(1994년, 2016년, 2018년)대상 지역(서울, 수원, 인천, 강화)별 7월 최고기온 극값
  - 서울과 인천은 1994년에 각각 38.4℃, 37.2℃로 7월 최고기온을 기록한 반면, 수원은 2018년에 극값을 경신하며 37.5℃의 최고기온을 기록하였다.

지역/년도	7월 일 최고기온(℃)		
	1994년	2016년	2018년
서울	38.4(7.24.)	34.1(7.22.)	38.3(7.31.)
인천	37.2(7.26.)	32.3(7.22.)	35.2(7.31.)
수원	37.3(7.23.)	34.2(7.11.)	37.5(7.31.)
강화	35.5(7.23.)	32.2(7.22.)	34.6(7.22.)

< 표 2. 1994년 7월, 2016년 7월, 2018년 7월 지역별 일 최고기온 극값 >

※ 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(출처: 기후통계지침(2017))

- 3개년도(1994년, 2016년, 2018년)대상 지역(서울, 수원, 인천, 강화)별 7월 폭염·열대야일수
- 2018년 7월 폭염일수는 수원에서 17일로 가장 많았고, 그 뒤로 서울이 16일, 인천과 강화에서 6일을 기록하였다.
  - 2018년 7월 열대야일수는 서울에서 12일, 인천과 수원에서 11일, 강화에서 3일로 나타났다.
  - 2016년의 경우 연도별 폭염 및 열대야일수 대비 7월 폭염 및 열대야일수가 적은 것은 7월보다 8월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.

지역/년도	7월 폭염일수(일)			7월 열대야일수(일)		
	1994년	2016년	2018년	1994년	2016년	2018년
서울	17	4	16	21	10	12
인천	11	0	6	16	9	11
수원	18	7	17	23	9	11
강화	10	0	6	7	3	3

<표 3. 1994년 7월, 2016년 7월, 2018년 7월 지역별 폭염·열대야일수>